

□ 국민주방송 설립준비위원회 5월초 공식발족

정치현실 고발할 국민주방송

최 종 속

(방송개혁국민회의 사무차장)

“우리 사회에서 방송이 반듯하게 서면 부정부패가 빨리 척결될 수 있고, 민주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 경제문제는 고임금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패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우리의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회장

“한시바빠 이런 방송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돈과 허가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그렇고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국민운동 차원으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천영세 전국연합 공동의장
“과업투쟁의 과정에서 한겨레신문이 없었다면 이번 과업투쟁을 이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민주노총은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에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2월 27일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는 각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해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에 적극 동참할 의지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국민주방송 논의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7일 국민주방송에 대한 논의를 끌어왔던 방송개혁국민회의 대표단과 방송바로세우기 시청자연대회의 대표단 10여명은 공동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준비주체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과 5월까지의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주방송 설립준비위원회’



답답함 풀어줄 시원한 방송 절실히 요구

5월초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통해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주방송 설립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방송의 민주화, 언론자유를 원하는 모든 단체 및 사람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될 것이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을 위해서는 꼭 이뤄져야 할 일이다.

5월초 공식발족에 앞서 방송 개혁국민회의와 시청자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곧 구성될 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는 발기인대회까지 이제까지 지속돼왔던 내부논의를 마무리 짓고, 발기인을 모아가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또 제3차 토론회를 통해 ‘국민주방송 소유구조 모델’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계획’ ‘운영체제’ 등에 대한 준비와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주방송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다. 3월 27일 1만명 명단 발표가 계획돼 있다. ‘국민주방송을 지지하는 사람들’에는 민주적인 방송질서와 국민주방송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명으로써 의사를 밝힐 수 있다.

“1천만명이 만원씩 내면 천억이 됩니다. 국민주방송이므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지영 영화감독
“우리의 텔레비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우정 여성단체연합 고문
“기존 방송사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은 방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못찾아 사장되는 국내작품이 많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이 방영될 수 있는 방송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박재동 우리문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회장

“국민주 방송 설립에 1만원 투자하면 5년 후에 5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5백40개의 공중과 방송이 40~50명의 사무실에서 직원 20~30명이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와 같은 시설을 꼭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고석만 드림서치 대표(전 MBC·SBS 프로듀서)

국민주방송은 돈이 적게들면 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이는 국민주방송 설립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이다. 한국의 기존 방송은 불필요한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방송을 하고 있다.



석자들은 ‘전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전면적인 민중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이 집회장소였던 종각을 빠져나와 명동성당으로 향하던 중 이들을 호위하던 전경들이 시위행

동이 많이 든다고 무조건 좋은 방송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재 한국 방송의 뉴스나 프로그램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기존 방송사가 좋은 방송을 하고 있다면 굳이 “우리들의 답답함을 풀기 위한” 국민주방송을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 방송사인 KBS, MBC 등은 기술장비 규모면에서 세계 6위 안에 포함된다. 이는 방송사측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방송사라고 ‘자랑’할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이 많이 들게 된다는 방송사의 자체제작율이 높으니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방송이 되는 것이다. 한 방송사가 프로그램과 보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제작사들의 활동의 무대를 넓혀 자체제작율을 낮춘다면 그만큼 방송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방송전문가들은 또 세계적으로 한국방송만큼 외형적으로 화려한 기교를 많이 쓰는 방송은 없다고 지적한다. 이 또한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체제작율이 높고 화려한 기교를 많이 쓰는 방송이 나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상황과 직결된다.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보니 다른사람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고, 하고싶은 말을 못하는 방송을 만들다 보니 화려한 기교로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어른형성의 독점권을 해체하고,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독점체제이나 신문재벌의 방송이 아닌 전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강단시론

박 상 수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교수)



지난 2월말 경영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부장을 맡아 계신 교수님께서 새내기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경영학부에 들어오게 된 여러분은 아주 행운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효율시장 가설에 위배

나는 단상 위에 앉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학생들의 표정과 반응을 흥미있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말에 자조와 냉소적인 표정을 보이던 학생들이 우리 학교 교수들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학생들의 지적 및 인격적 발달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끈기있게 설명하며 학

는 마찬가지이다. 서울 강남에서 30분 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산과 호수와 맑은 바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캠퍼스와 교수진의 뛰어난 학문적 성취도 등 우리 학교의 교육여건에 비추어 우리가 선발한 학생들의 자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이 중 그 어느 한쪽이라도 사실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학선택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다. 효율적 시장이라면 당연히 실력이 있는 학생은 거기 알맞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교육여건이 좋은 대학은 그만큼 실력이 있는 학생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 월여를 지루하게 지속되던 대학선택의 장터는 퍼져있다. 그

대학 시장 효율성의 사각지대

생들의 결단과 성실한 노력을 요구하자 학생들의 얼굴에는 차차 긍정적이며 안도와 결의에 찬 표정이 역력해졌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가르치는 효율시장가설(効率市場假說)에 위배되는 현상이 대학의 평가와 선택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효율시장가설은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투자론이나 증권시장론을 강의하면서 이를 아주 열심히 설명한다. 열심히 지나쳐 때때로 나는 내가 효율시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효율적 시장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의 내재적 가치와 일치하는 시장을 말한다.

학생 자질 기대 못미쳐

만약 대학을 선택하는 시장도 이와 같이 효율적이라면 우리 경희대학교의 가치와 평가는 학생들의 내신이나 수능성적 및 기타 실력과 비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입시면접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자기의 수능 점수나 내신 성적이 자신의 진짜 실력만큼 나오지 않아서 불만스럽게 우리 경희대를 지원했다는 것을 피력하곤 한다. 즉 학생들은 우리 경희대를 선택하게 된 것은 자신의 실력에 비추어 억울한 일이며 대학시장은 자신을 저평가하여 자리매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학생들을 선발한 우리 교수들도 불만스럽게

리고 대학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도 이제는 차차 의미없는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대학간판 성공에 불필요

나는 우리 학교를 선택한 여러 새내기들이 과연 행운아인지 혹은 불운아인지 이제부터 이들이 과연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얼마나 알차게 꾸며 나가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졸업후에 대학간판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만이 환영받고 대우받는 시대이다. 여러분이 일류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한들 놓고 마시며 세월을 낭비한다면 그 장래가 보장될 없이는 한 여류의 베퍼와 다를 바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각오로 노력한다면 대학 4년을 마칠 때 좀 자신도 감쪽 놀랄만큼 훌륭히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생 승부수 대학4년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여기 캠퍼스를 지키고 있는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은 그러한 여러분을 도울 만반의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나는 진심으로 이제 갓입학한 새내기들을 환영하면서 대학 4년을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거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최현일 기자)

현장취재

생존권을 위한 민중연대투쟁

민병일씨 사망관련...전경들과 격한 몸싸움

민중생존권 쟁취와 민병일(전국 철거민연합회 조직부장) 씨 사망에 관련된 책임자 처벌에 관한 집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 종로공원에서 열렸다.

6백여 명의 전국철거민 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과 한국 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학생들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 경과보고에서 신훈

(국민대총학생회장)씨는 “지난 달 2일 민병일씨가 노점상단속으로 빼앗긴 노점집기를 되찾기 위해 신갈과출소를 방문했다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져 있던중 뇌사 13일만인 지난 17일 새벽 7시경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현길(민주노조 해고자 복직투쟁위원장)씨는 “목숨과도 같은 집기를 찾으러 간

민씨를 폭행한건 잔인한 처사이다”라며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무참히 짓밟힐 뿐이다”라고 말했다.

2부 본회의에서 민병일씨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연설에서 “노동자가 살고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부 본회의를 마친후 집회참

석자들은 ‘전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전면적인 민중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이 집회장소였던 종각을 빠져나와 명동성당으로 향하던 중 이들을 호위하던 전경들이 시위행

렬에 둘러싸여 그곳을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전경과의 대치가 심해지자 시위대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집결하여 30분간 투쟁연설을 가진 후 자진해산 하였다.

(최현일 기자)



3년 세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난 입영명사를 탄겁니다.
거기에는 거려야 한다고 믿기에...
정직한 젊은이들-체이스컬트



'97 CHASECULT CONCERT



지혜 금새 출연 전국 25개 대학연합 체이스컬트 오케스트라/유니버시티/일시 장소 서울 3월 22일(토) 오후 4시 예술의전당/부산 3월 23일(일) 오후 4시 KBS 부산홀/광주 3월 24일(월)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주최 체이스컬트 협찬 KMF 삼성컴퓨터통신 유니텔 후원 25개 대학 연합 체이스컬트 오케스트라 2002년 3월 24일(월) 19시 30분 공연문의 02-520-6306 입장권은 체이스컬트야말로 문의하세요.

CHASECULT THE SOFT TRADITIONAL